

요약

도시공원, 시설 현대화 - 편의성·접근성 증진 주변지역 건강프로그램 연계해 활성화해야

도시공원은 건강증진에 큰 효과… 수요분석 등으로 활성화방안 제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래 도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을 통한 공원 운영은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걷기를 포함한 공원 내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은 사회적,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이렇듯 공원은 시민들이 신체활동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법적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했고,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원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등은 소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수요 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도시들,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장소로 도시공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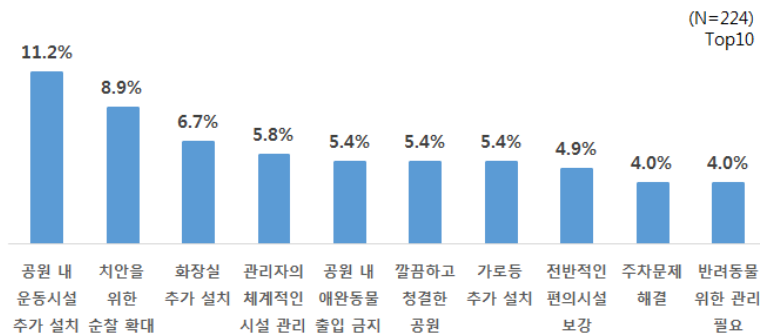
해외의 도시들도 도시적 차원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과 공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원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하며, 공원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행로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공원 내부의 다기능화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안내시설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실천전략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들, 건강도시 기반마련 노력 ... 참여부족·지속성결여 한계

국내 여러 지자체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공원에 도입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과 프로그램의 지속성 결여와 같은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인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고,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지 못하여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연계되어 뒷받침된다면,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조성도 가능하고, 시민의 참여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서울시민들 “공원 내 걷기, 체조 위주 활동 ... 편의시설·음수대에 불만”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주로 65세 이상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걷기, 체조’가 7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원 내 헬스기구 이용’이 11.2%로 나타났다. 시설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산책이나 체조 등 맨손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비율이 높다. 운동을 위한 시설이 그다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이는 걷거나 체조 위주로 공원을 이용하므로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때문이다. 반면에 편의시설이나 음수대에 불만이 많았다. 공원의 개선사항으로는 운동시설 추가 설치, 치안을 위한 순찰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치안을 위한 순찰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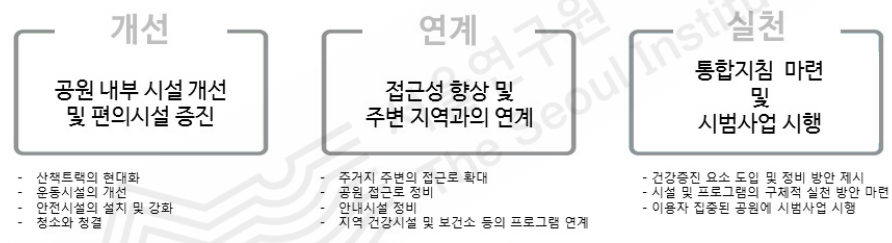


[그림 1] 개선 의견

7개 공원 조사 “주 이용계층 고려 부족, 시설 획일적, 프로그램 미비”

독립공원, 흥릉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개포근린공원, 송인근린공원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편의성, 이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이라는 7개 항목, 14개 요소별로 3점 척도(상중하)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결과 ① 운동시설의 개수나 종류, 정비 상태 등이 공원마다 고르지 않다.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획일적인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주 이용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② 건강증진 활동의 편의성을 위한 방법별, 음수대,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증진이 필요하다. ③ 접근로 정비 및 안내시설의 추가가 필요하다. ④ 건강증진 시설에 비해 프로그램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 ⑤ 인접한 공공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활용한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운영 및 활성화

[그림 2]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개선 방안

공원시설 현대화, 산책로·운동시설 개선, 안전시설·청결성 강화 필요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뿐 아니라, 산책로의 노면상태 개선, 운동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와 강화, 청결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산책 트랙은 면밀하게 조사하여 필요시 보행로 폭을 확장하고, 흙이 패어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곳은 교체하고, 탄성 포장이나 흙길 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안내판을 설치해 적정 운동거리의 동선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인근 산림의 둘레길과 연계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운동 시설은 안전성과 운동의 효율성을 갖춘 시설로 교체하거나 정비한다. 성인 남성의 이용에 맞추어진 시설이 많은데, 연령대를 고려한 시설물의 개선도 필요하다.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식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다. 음수대, 수도시설 등의 식수시설의 개선과 구비가 시급하다. 공원 내의 화장실에는 방범벨, CCTV 등 안전망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야간 이동에는 가로등이 필수적이므로 가로등 정비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구의 고장으로 불빛이 흐리게 되면 부상 가능성이 있고, 시민이 공원 접근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공원을 순찰하면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장실이 부족한 공원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접근성 높이고 주변지역 체육센터·도서관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물리적 측면의 접근성 개선과 공원 외부와의 연계를 이용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입구가 정문, 후문으로만 만들어진 출입문을 여러 곳의 측면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확보한다. 경계면상의 도로로 접근이 어려운 공원은 배후지역과 구름다리 또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연계한다. 주차장 수요를 파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도보에만 국한되지 않은 이용객 편의 고려가 필요하다.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공원 외부에서의 진입, 공원 내부 동선 활용을 제시해야 한다.

공원 주변에 체육센터나 도서관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곳의 프로그램을 공원에서의 신체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야외 건강활동이 주는 유익을 얻게 된다. 최근 지역 보건소의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보건소의 프로그램에 공원 내 활동을 포함하면 공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원봉사 방식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며 지역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토록 한다.

건강증진 방향성·실천전략 담은 통합지침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시행

서울시는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의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과 통합적인 지침 마련이 미흡하다. 공원관련법에도 공원 및 시설 설치 기준이 있지만, 시설 설치기준에 한정되어 있다. 개별 공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것이 없다. 따라서 조례를 보완하고,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공원과 신설 공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요소 도입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배후지역과 인접한 시설과 연계 요소, 시설 증진 요소, 프로그램 도입 요소에 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갖도록 한다.

서울시 권역별로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공원을 선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장하였으면 한다.

